

한국의 '나란다 대학' 꿈꾸며 앞으로 앞으로

① 조계종립 중앙승가대학교

3월 2일 오후. 중앙승가대학교 캠퍼스가 분주하다. 2012학번 스님들의 입학식 날이다. 가사를 수하고 다소 긴장한 얼굴을 웃음꽃으로 가려 보는 스님들. 축하의 꽃다발과 격려의 말로 새 출발의 다짐을 나누는 도반과 은사스님들이 캠퍼스에 봄기운을 한껏 뿌려 주고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 27명, 박사과정 10명, 학부 신(愼)입석 69명. 106명의 스님들이 새로운 도량에 새로이 '출가'하는 입학식 풍경은 다른 대학과 사뭇 다르다. 엄숙한 서원의 기운이 흐르기 때문. 총장 태원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학인으로서의 학문연구에 매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다소 외진 곳. 아파트 단지와 금정산 사이에 중앙승가대학교가 위치한다. 세속과 탈속의 그 중간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처의 조건 가운데 '마음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이란 바로 이런 곳일 것이다.

학교 이름에 학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중앙(中央)은 사방의 중심이 되는 곳이고, 승가(僧伽, Sangha)란 출가자의 집단이다. 그리고 대학교란 종합적인 학문의 연관과 인격도야의 현장이다. 중앙승가대는 조계종 승적을 지닌 출가자만 입학이 허용된다. 조계종 중립대학(원)으로 학사와 석, 박사 를 배출하는 정식교육기관이다.

1989년 7월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설립된 이후 23년. 1979년 의정부 상동사에서 '불교중앙승가학원' 설립 발기 모임으로부터 33년째. 그동안 1729명의 스님들이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문학사 학위를 받은 스님이 962명이고 66명의 석사와 6명의 박사가 배출됐다. 졸업생의 수와 학사학위 수여자에 차이가 큰 것은 1990년에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각종학교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졸업현황은 조계종 소속 스님들만으로 국한된 인적 구조를 감안하면 중립교육기관으로서의 성과가 자못 크다.

'한국의 나란다 대학을 꿈꾸며...' 중앙승가대의 서원이 담긴 슬로건이다. 5세기 인도 굽타왕조 시대에 건립되었던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 7세기 현장법사가 방문 했을 때 학인이 1만여 명에 교수가 1500여 명이었다고 한다. 12세기 이슬람교도에 의해 파손되기까지 700여 년 동안 세계 불교학과 인문학의 중심이었던 나란다 대학. 그 영광을 다시 밝히려는 중앙승가 대학의 서원은 오늘날 안팎으로 발전하는 학교의 위상이 대변한다.

중앙승가대는 올해 학부제를 도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재 개설된 학과는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이를 불교 학부와 불교사회학부로 나누고 불교학부에 불교학과, 불전번역학과, 문화재학과를 두고 불교사회학과에는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를 두게 된다. 문화재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가 증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른 교수 인력의 확보도 5~6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승가교육기관으로서 현대사회의 흐름에 맞춘 교육여건을 온전히 갖춘 계기가 되었다는 게 학교의 설명이다.

각 연구소와 부설기관의 역할 팽창도 중



김포 풍무동 중앙승가대학 전경. 중앙승가대는 6개 연구소와 4개 위탁시설, 1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제 도입 내년부터 증과 문화재학과·불교상담심리학과

세계대장경 한눈에 열람 복지시설 및 김포불교대 운영

중앙승가대가 꾸준히 공력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 중앙승가대에는 불교학연구원과 승가학연구원 산하에 6개의 각종 연구소가 가동되고 있다. 각 연구소는 정기적인 학술 행사와 논집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과 안암어린이집 등 4개의 위탁시설과 15개의 복지시설의 운영은 '인류사회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이라는 설립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 빼 놓을 수 없는 일. 중앙승가대는 지난 3월 6일 '2012년 김포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 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한 지역불자들이 80여 명. 김포불교대학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승인 시설로 운영되며 300여 명

의 불자들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포교 우선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학교의 다양한 기능 배가를 위해 지난해 10월 이사회가 학교부설로 인가했다.

중앙승가대 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보물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바로 대장경 열람실이다. 현재 도서관 1층 마련된 대장경 열람실에는 세계 30여 종의 대장경이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세계의 대장경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중앙승가대가 유일하다.

중앙승가대가 출가한 스님들만의 교육도량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후원'이다. 선지식을 양성하는 도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라 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불자 대중의 후원으로 풀어야 하는 것. 그래서 중앙승가대는 '시대를 선

도하는 승가교육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지식 양성과 불교증흥을 위한 5000원 1계좌 동점 불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발간된 승가대신문에 따르면 올 1월 말일 기준으로 5억 82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적립되었다. 이중 8400여 만 원이 CMS로 입금된 것이어서 자동이체에 의한 대증모금이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승가대 후원금은 불교학의 발전에 쓰이는 진정한 '정재(淨財)'이고 보시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공감 확산을 위해 학교와 총동문화, 종단 등이 좀 더 숙고하여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나란다 대학'이라는 중앙승가 대학의 서원은 먼 꿈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장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상사(日常事)'다. 잔걸음으로 도서관과 강의를, 속소동을 오고가는 스님들의 푸른 눈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김포 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사진제공:중앙승가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입학식 수련회 발우공양 모습. 3월 2일 106명의 스님들이 새로이 출가하는 마음으로 입학했다.

"시대 변화 선도하는 선지식 양성에 진력"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학부제의 도입에 따른 만반의 준비가 올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충분한 토론이 있어 왔고 나름대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고르게 갖추었습니다." 중앙승가대 제5대 총장인 태원 스님(사진)은 1990년부터 강의를 해 왔다. 누구보다 중앙승가대의 발전 가능성에 자신있고도 그만큼 애정과 열정도 강하다. 무엇보다 태원 스님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승가교육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문화재학과와 불교상담심리학과를 증과를 학교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물질문명이 발달 할수록 사회적 정신 공황은 심화됩니다. 그를 해결하는 길이

불교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명상과 상담의 치료 기능을 극대화해야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타정신의 실현이구요."

태원 스님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공부로 '언어의 벽'을 극복하는 것이라 말한다. 스님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원어만 교사를 초빙해 언어교육에 매진할 방침이다.

"불사 가운데 가장 큰 불사는 도를 깨치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위해 중요한 것이 수행자들이 도를 깨치고 그것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중앙승가대학이 바로 선지식을 양성하여



세상의 고(苦)를 치료하는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우지를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명의 선지식이 10개의 법당 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태원 스님은 보다 많은 불자들이 중앙승가대 후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글 사진:임연태 논설위원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범이 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포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편히 가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괄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사단법인 천우중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중